

1. 글을 읽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?

-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()가 나오는 경우
- 무슨 뜻인지 모를 의미가 ()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
- 주제나 중심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 그것을 ()해야 하는 경우
- 글쓴이의 주장이 ()이고 타당한지 ()하기 어려운 경우

2. 다음 글은 다음 시간에 배울 교과서의 서론입니다. 서론 부분만 읽고,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채워 볼까요?

벼락치기의 두 얼굴

| 한국 방송 공사 과학 카페 제작 팀 |

초등학교 시절 개학을 앞둔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 벼락치기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. 가장 미루기 쉬운 과제는 물론 일기이다.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되고 만다. 개학하기 며칠 전부터 한 달 동안의 날씨며 하루의 일과를 떠올려 한 달 치 일기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해치운다.

시험을 앞둔 학생도 마찬가지이다. 시험을 치를 때마다 벼락치기를 한다. 시험 보는 날 아침, 너 나 할 것 없이 학생들 모두 **학구열**이 넘친다. 이때만큼은 평상시와 달리 필기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, 잘 외워지지 않던 어려운 수학 공식이며 영어 단어도 술술 외워진다. 이처럼 우리는 시험 직전에 공부에 훨씬 잘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. 도대체 벼락치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?

1. 뜻을 잘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? 있다면 적어봅시다.

2. 모르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앞 뒤 문맥을 통해 추론해서 써 보자.

3. 다음부터 이어질 본론은 어떤 내용일지 써보자.

4. 여러분은 벼락치기를 해 본 적이 있는가?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, 언제 어떻게 벼락치기를 했는지 써 보자.